

# 700년전 '신안 보물선' 20년만의 새단장

목포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신안선' 발견 40주년 특별전 내년 2월 22일까지

1975년 8월20일 신안 앞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한 어민의 그물에 도자기 6점이 걸려 올라왔다. 국내 고고학계는 흥분했다. 문화재 당국은 이들 도자가 중국 송(宋)~원(元) 시대에 만들어져 매우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했다.

이듬해 본격적인 발굴 작업이 시작됐다. 한국 수중고고학의 시작이자 최대 규모의 해저발굴 작업이었다. 잠수부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바다 속에서 시퍼런 불과 사투하며 발굴 작업을 시작했다. 여러차례 추가 조사와 수중발굴을 진행했다. 발굴조사는 1984년까지 9년간 11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결과는 실로 놀라웠다. 고려청자를 비롯해 도자기만 2만661점에 달했고, 청동 거울, 주전자, 잔, 접시, 악기 등 수많은 물품이 쏟아

져 나왔다. 발견된 동전의 무게만도 28t에 달했다.

고고학계의 조사결과 이 배가 고려 말기 한·중·일 3국을 오가던 중국 무역선으로 밝혀졌다. 원 제국이 완성되고서 40여년 후인 1323년 중국 푸젠(福建)성 환저우(泉州)항을 떠나 고려를 거쳐 일본 하카다(博多)항으로 가던 중 신안 지도를 서남쪽 증도와 도덕도 사이에서 침몰했다는 것이 학계의 조사 결과다

650년 넘게 잠들어 있던 '신안 보물선'(이하 신안선)은 그렇게 세상을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1994년 목포에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이 개관했다.

내년이면 '1323년의 타임캡슐'인 '신안선'이 발견된지 꼬박 40주년이 된다.

목포에 위치한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소재규)는 해양유물전시관 개관 20주년과 '신안선' 발견 40주년을 맞아 '신안보물선 전시실'을 재개관했다. 또 23일부터 내년 2월22일까지 '해양유물전시관 기획전시실'에서 '해상교류를 통해 본 서남해 바닷길 기획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신안보물선 전시실 재개관'은 지난 1994년 신안

선 첫 공개 전시 이후 20년 만에 이뤄졌다. 이번 전시에서는 700년 전 타임캡슐인 '신안선'을 비롯하여 배에 실린 각종 공예품, 동전, 자단목(紫檀木), 향신료, 선상 생활용품 등 동남·동북아시아 국가의 유물 130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박물관 관람의 하이라이트는 물속에 잠겨 있던 수백 년 시간을 다시 물 위로 끌어올린 듯한 복원된 신안선이다. 원래 길이 35m, 너비 11m, 중량 200t으로 추정되는 배로 바닷속에서 720개의 파편을 나뉜 인양한 뒤 퍼즐을 맞추듯 조립해 옛 모습과 거의 그대로 복원했다. 특히 발굴과정에서 나온 '지치삼년(至治參年)이라는 목패(木牌)와 '경원로(慶元路·지금의 닝보)라고 새겨진 '물표'(화물 꼬리표)는 신안선이 1323년에 중국을 출발해 고려를 거쳐 일본으로 가다 난파된 배임을 알렸다.

'신안보물선 전시실 재개관'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기획특별전 '해상교류를 통해 본 서남해 지역의 바닷길'에서는 서남해 지역을 중심으로 신석기 시대의 패총과 청동기 시대의 지석묘 분포 현황을 통해 처음으로 바닷길을 개척했던 사람들의 역사적 흔적들을 살펴본다. 또 ▲마한·백제 세력의 해상 진출과 교류 ▲우리 역사상 해양 진출과 국제 교역의 효시를 이룬 장보고와 해상강국 고려의 바닷길 운영 ▲표류라는 우연에 의해 바다에 대한 관심을 썩 잊었던 조선 시대의 해양 교류 등을 볼 수 있다. 독일인 지볼트가 1840년대에 쓴 저서 '일본'에 실린 전라도 선원의 모습과 고종 야막고분에서 출토된 청동고분 등이 함께 전시된다. 개막행사는 2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문의 061-270-2040.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 고려 말 한·중·일 오가던 중국 무역선 선상 생활용품, 동남·동북아 유물 1300여점 등 전시 해상교류 통해 본 서남해 바닷길...복원된 신안선 '백미'

## 현대를 산다는 것

송영학 개인전 28일까지 금호갤러리



인간도 동물도 아닌 현대인의 초상을 화폭에 담아오고 있는 한국화가 송영학씨의 4번째 개인전이 28일까지 광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 3관에서 열린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일상을 채워가다-허(虛)'를 주제로 현대인의 일상과 내적인 관심을 반인반수를 소재로 표현한 회화 작품 20점을 선보인다.

상상 속이나 있을 법한 반인반수를 소재로 한 그의 작품은 영동하고 유머러스한 이미지로 다가

와 웃음을 유발시킨다. 강렬한 보색대비 등 화려한 채색기법이 특징인 송씨의 작품은 불교미술에 뿌리를 두고 있다.

특히 동양사상에서 땅을 지키는 12명의 신장을 일컫는 십이지신(12간지)의 형상을 차용한 이미지는 개성이 뚜렷하다. 조선대 미술대학을 졸업한 송씨는 대한민국 한국화 대전 대상, 광주시 미술대전 대상, 여동미술대전 최우수상, 소치 미술대전 신작가상 등 국내 주요 공모전에 입상했다. 문의 062-360-8432. /김경민기자 kki@

## 스승의 음악 여정 반추

성애순 전남대 교수 독주회 23일 지음홀



6살 때 처음 가야금을 접한 성애순<사진> 전남대 국악과 교수는 대학원을 졸업하던 1980년부터 매년 독주회를 열어왔다.

올해 40번째 독주회는 스승 황병기 선생의 음악 여정을 한 눈에 살필 수 있는 곡들로 레퍼토리를 짰다.

23일 오후 6시 전남대 예술대학 지음홀에서 열리는 '황병기 작품 이야기 I'에서는 최초의 가야금 작품으로 1963년 작곡된 '숲'을 비롯해 2000년대까지 십년마다 대표작을 선정해 연주한다.

성씨는 "선생님 곡을 오래 연주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작품들이 더 마음에 와 닿는다"며 "평상시 많이 연주하고 좋아했던 음악들을 중심으로 시대별 대표작을 뽑아 연주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령이 깃든 나무에 대한 음산한 도입부로 시작되는 '영목'(1979), 현란한 연주 기교를 만날 수 있는 남도환상곡(1987) 등을 들려준다. 피날레 곡은 '가야금과 장구를 위한 하마단'이다. 페르시아 시대부터 있던 고대 도시 이름에서

제목 따온 '하마단'은 현대 스님의 시 '하마단'을 읽고 시인 객재가 쓴 수필 '존재의 따뜻한 먼 길'에서 영감을 얻어 작곡한 곡이다. 장고 반주는 이왕재(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단원·국악실내악단 황도제 대표)씨다.

중요무형문화재 제24호 가야금 산조(최옥삼류) 이수자인 성 교수는 KBS 국악대상(현악 부문), 광주시문화상, 전남대 융복합학상 등을 받았으며 광주가야금연주단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연말 송년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파죽지성 58회 연속 선정

www.geumsoojang.com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연회장 | 가족모임 | 세미나 | 상견례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외관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너스
- 맞춤형 출장도시락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사추천제품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4. 옥상시공후

배란다 | 시공전 | 시공후

문의: 010-04872548, 010-12231968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 시공전 |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밸런스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